

무관심·홀대 받는 광주학생독립운동

호남 41개 참여 학교 구제적 활동·인물 조사 등 널리 알려야
기념사업회, 사적지 7곳·흥학관 복원 등 역사계승 사업 촉구
419·518 버스처럼 '1103 버스' 신설하고 인물전 발간 지원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올해 90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유적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 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위상 확립과 역사계승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학생독립운동 유적지를 복원하는 등 역사계승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을 넘어 해외로 확대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3·15 광주의거,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928년 건립된 전남여고 본관을 제외한 광주지역 유적지는 모두 사라졌고, 학생운동의 주역인 장재성 선생을 비롯한 주요 인물도 독립유공자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참다 못한 기념사업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처가 확정해 둔 광주학생독립운동 대표 사적지 7곳과 광주 근대화기 시민사회운동의 본거지였던 '흥학관'에 대한 복원이다.

보훈처가 지정한 사적지는 ▲옛 광주역터(현 동부소방서) ▲광주 토교터(현 대인시장 동문다리 입구) ▲4개 학교터(현 광주일고·현 전남여고·전 광주농업학교·전 전남사범학교) ▲김기권 문방구터(현 금남공원) 등 7곳이다.

대표 사적지 7곳에선 빠졌지만, 흥학관

복원사업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흥학관은 3·1운동은 물론 광주학생운동 당시 청년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이자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결성한 곳으로, 1960년대 광주시청이 동구 광산동에서 계림동으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철거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기념사업회는 이들 역사적 현장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세우고,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인 2029년 이전까지 시설 복원·완공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두 번째 요구는 '1103번' 시내버스 신설이다. 현재 광주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419'와 '518' 시내버스는 다니고 있으나,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한 '1103' 버스는 없다.

기념사업회측은 "버스번호만 놓고 보더라도, 광주시와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학생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소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유적지를 연결하는 1103번 버스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념사업회측은 또 광주시는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독립유공자 신청사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까지 학생독립운동 참여자와 참여학교 등에 대한 명단 등 관련 자료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회측은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교 320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호남지역 41개 참여학교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참여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 및 지원조례 제정으로 학생독립운동 주역들에 대한 인물전 발간과 기타 기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성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무관심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세로부터 '역사의 죄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광주시 등은 100주년을 10년 앞둔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한밤중 멧돼지 출몰...실탄 쏘 포획

한밤 중 광주의 한 사거리에 야생멧돼지가 출몰해 출동한 경찰에 사살조치 됐다.

27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서광주역 앞 사거리에 야생멧돼지 한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0kg에 육박하는 암컷 야생 멧돼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배회하다 지나던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 10여 발을 발포해 야생멧돼지를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멧돼지에 다리를 물리기도 했다.

다행히 사살된 멧돼지에서 1차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구청은 멧돼지 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 해상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16명 부상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께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향승강장 내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있던 총 40여명 중 손잡이를 잡고있지 않던 16명이 다쳤다. 이 중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케이블카 운영사측은 이물질이 에스컬레이터 내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승강장 안전관리공단은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부서 옮겨서도 군수에 뇌물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업자들에게 수년간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담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 3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부서가 바뀐 뒤에도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제3차 뇌물취득죄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후임이었던 B씨도 10개월간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강등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보직이 바뀐 후에도 업체들에 금품을 받아 공식 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A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파면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비위 행위 및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A씨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시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경계석 들이받아 숨져

지난 26일 오후 7시 25분께 광양시 죽마동 가야산 인근 한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남친 집 화장실서 생리대 보고 격분...김치통 내던지며 소란

○남자친구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을 보고 격분해 김치통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경찰 관계자는 "생리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께 같은 40대 남자친구 B씨의 원룸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발견한 뒤 남자친구에게 "바

람을 피웠냐"며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김치통을 꺼내 거실 벽면에 내던지는 등 집안 물품을 마구 부숴대는 등 소란을 부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로에 캠핑카 주차 갈등 이웃 살해 70대 징역 18년

농로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엄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농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께 나누시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로 통행 문제 등으로년부터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농로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자 "농사에 방해되니 차를 빼라"고 다뤘고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27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 경연을 펼치고 있다.

바다 빠진 여성 어민, 남편 손 붙잡고 버티다 해경에 구조

문어잡이에 나선 여성 어민이 바다에 빠져 남편 손을 붙잡고 버티던 중 완도해경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7일 오전 해남군 송지면 갈산항 남서

쪽 400m 해상에서 A(여·75)씨가 어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졌다.

해상순찰에 나선 완도해경경찰서 연안구조정이 우연히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다.

해경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남편이 내민 손을 붙든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해경은 A씨를 배 위로 끌어 올려 안전하게 구조했다.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70대 고령인 A씨 남편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데, 해경이 빠르게 도착해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A씨는 문어잡이 통발을 거둬들이려 배를 타고 가다가 갑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